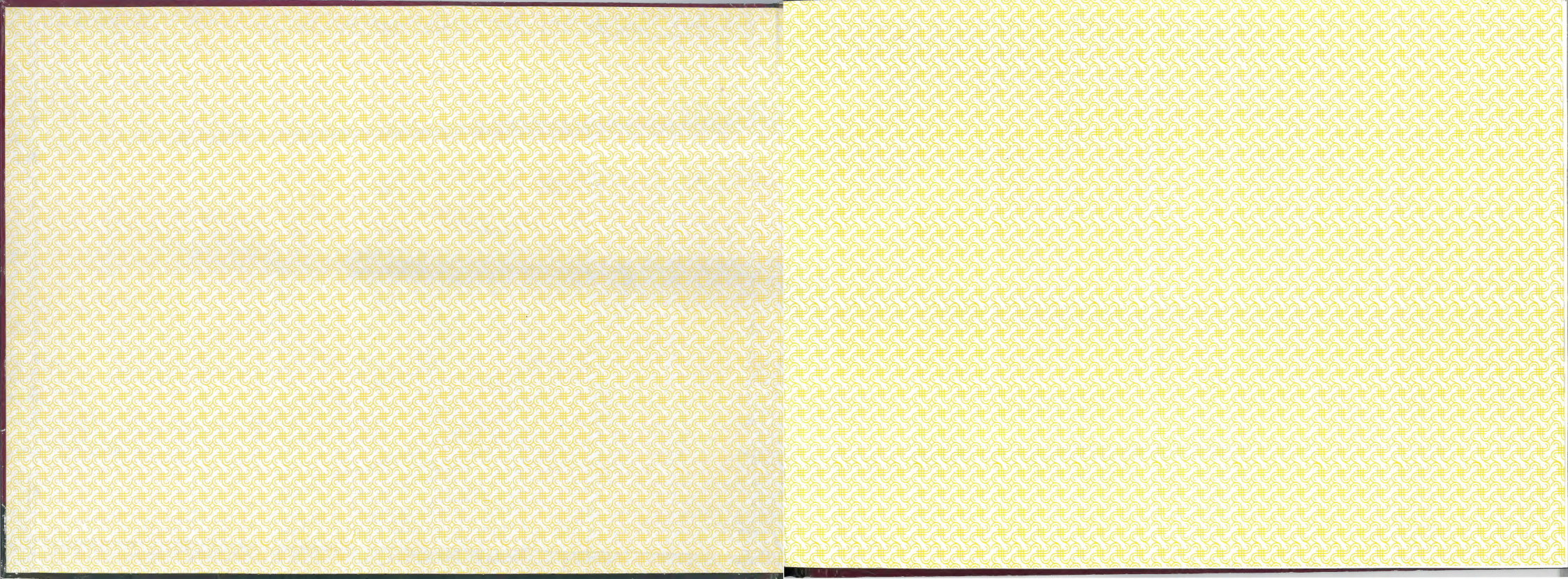


오늘의 풍경화



문학예술출판사



오늘의 풍경화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92(2003)



조선화 백두산천지에 오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정영만

화첩 《오늘의 풍경화》를 내면서

풍경화! 풍경화는 미술작품가운데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들이 즐겨 감상하는 미술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는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여 미술가들은 조상대대로 조국의 수려한 산천경개를 화폭에 담아 그리기를 좋아하였으며 인민들은 풍경화를 더없이 사랑하였다.

풍경화는 다른 미술종류들보다 앞서 발전하였으며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어왔다.

하지만 지난날의 풍경화는 묘사대상도 단순하였고 미술가들의 미학적정서적인 제약성으로 하여 자연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놓는데 불과하였다.

우리 나라의 풍경화창작은 광복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광복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는 우선 풍경화의 묘사대상이 수없이 늘어나고 그 내용이 비할바없이 풍부해졌다.

나라의 도처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발굴되어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 대기념비들이 건립되었다.

또한 당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도시와 거리들에 공장, 기업소, 고층살림집들이 수풀처럼 키돋움해 일떠서고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어깨나란히 들어앉은 농장마을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행복의 락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

장엄하고 아름답게 변모된 주체조국의 새 모습, 이는 정녕 오늘의 풍경화를 명화로 창작할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되었다.

하지만 묘사대상이 좋다고 하여 저절로 풍경화가 명화로 그려지는것은 아니다.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사회주의미술리론을 창시하시여 우리 시대 풍경화창작의 튼튼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연을 훌륭히 그려낸 그림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새로운 창조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자연을 그리는데서는 뜻과 정서가 잘 어울려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풍경화가 차지하는 인식교양적의의와 창작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여 주체미술건설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최근년간만 하여도 선군령도로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 미술창작기관들에 몸소 나오시여 풍경화창작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때로는 풍경화의 종자를 안겨주기도 하시고 또 언젠가는 비행기에 태워 명승지들에 보내주기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 깊은 사랑을 받아안고 감동을 금치 못하며 미술가들은 풍경화창작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바쳐 훌륭한 명화들을 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풍경화창작을 장려하여 해마다 국가적인 풍경화전람회를 열도록 하심으로써 날이 갈수록 풍경화창작이 왕성해지도록 하여주시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풍경화라고 하면 층암절벽이나 폭포수, 꽃이나 새같은 순수 자연만을 그리던 낡은 리론과 고루한 재래식 화법에 종지부를 찍고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풍경화창작의 새 력사가 시작되어 오늘의 선군시대로 즐기찬 발전의 길을 수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이 명화로 태어난 1970년대 초를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온 우리 미술가들은 지금 선군시대의 벽찬 현실을 반영한 풍경화창작에 불타는 충성심과 뜨거운 열정을 다바치고 있다.

이 보람찬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조선화 《칠보산의 가을》, 《해금강의 파도》를 비롯하여 풍부한 감정과 세련된 필치로 작품이 담고 있는 사상주제적내용을 훌륭히 구현한 수많은 풍경화들이 명화로 창작되었다.

하기에 최근에만하여도 우리의 풍경화를 감상하고난 세계의 저명한 미술가들과 애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의 풍경화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 최상의 경지에 오른 본보기명화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편집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의 명화로 창작되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풍경화작품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묶은 화첩 《오늘의 풍경화》를 세상에 내놓는다.

여기에 수록된 화폭들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미술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귀중한 민족의 국보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편 집 부





차례

조선화풍경	(11)
유화풍경	(51)
조선보석화, 출판화, 수예풍경	(97)

조선화풍경



조선화 금강산의 관음련봉 한영배



조선화 동백꽃과 참대 정창모



조선화 묘향산의 서곡폭포 류명복



조선화 금강산선하계의 아침 로성근



조선화 김정일화 송시엽



조선화 대와 진달래 박진영



조선화 금강산세존봉계곡 황영준



조선화 을밀대의 봄 리정희



조선회 오성산 김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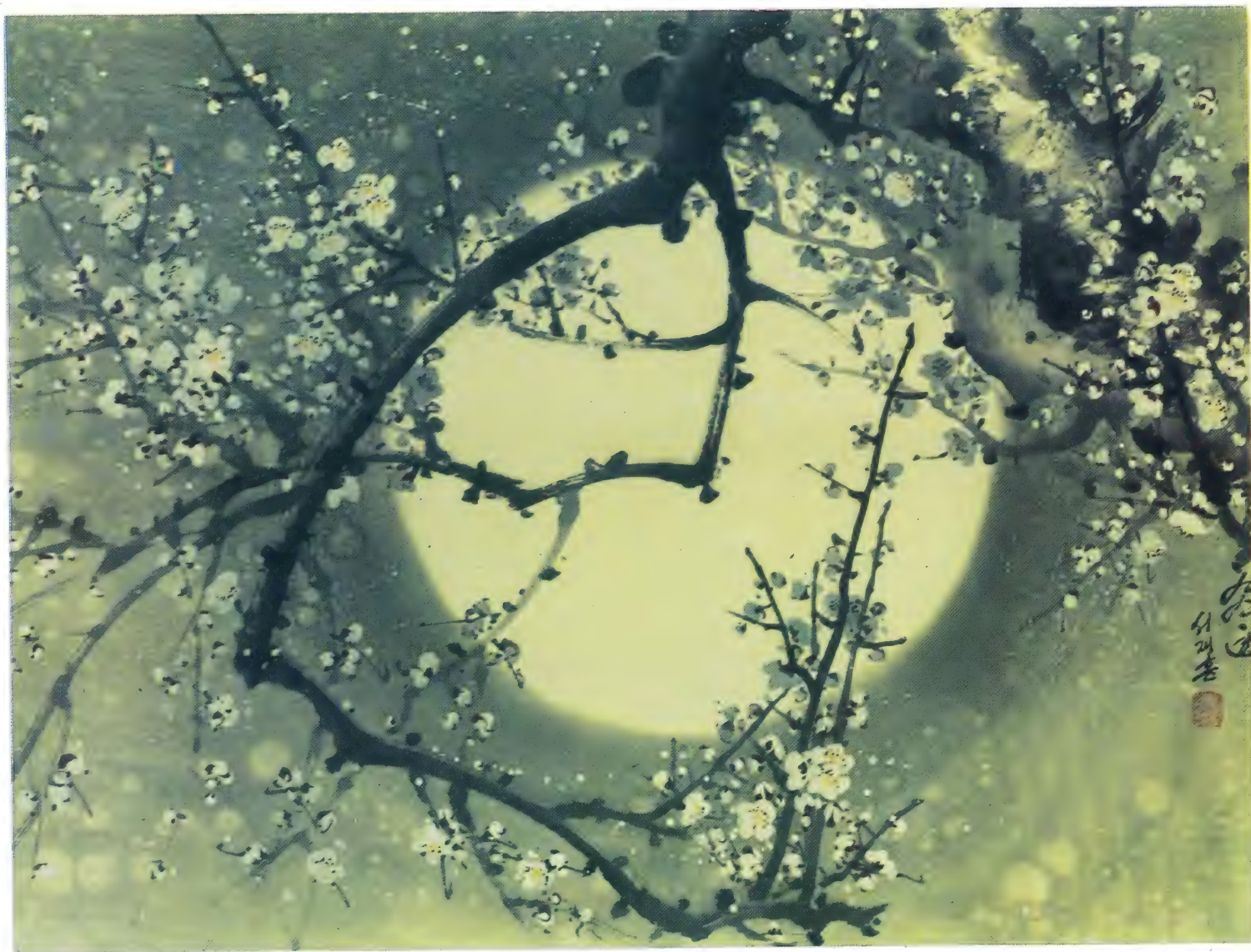
조선화 두만강하류의 아침 류봉천



조선화 수확계절 최철호



조선화 신사동밀립 신응찬



조선화 달밤의 백매 서재홍



조선회 금강산관음폭포 김상호



조선화 평양의 칠성문 리창



조선화 표훈사의 여름 최명식



조선화 고향의 봄 김상호



조선화 칠보산의 여름 로성근



조선화 삼지연의 첫눈 김윤



조선화 다박솔초소의 첫눈 리철경, 차진



조선화 파도를 헤치고 김성근



조선화 묵음 서재홍



조선회 룡수정폭포 최창호



조선화 외금강계곡 홍석남



조선화 안개흐르는 상팔담 리일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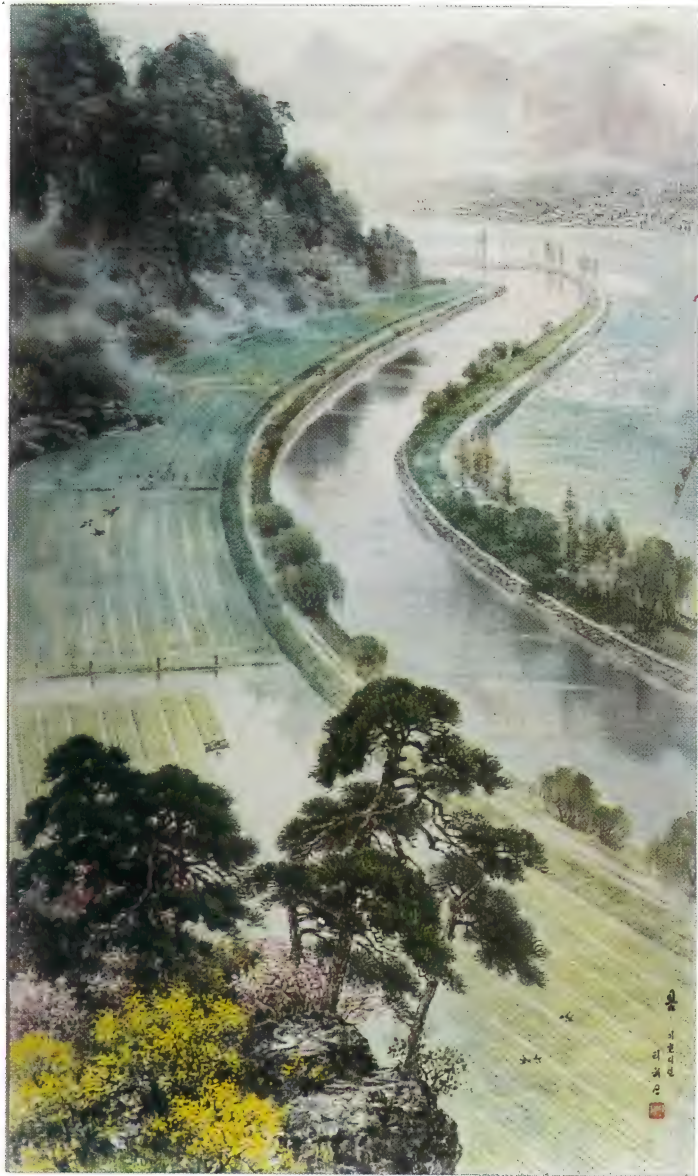
27 조선화 관음봉의 아침 선우영



조선화 구룡폭포 김상호



조선화 음밀대 리률선



조선화 봄 리혜성



조선화 봄향기 황영준



조선화 高요한 숲속에서 리물선



조선화 산악의 수리개 리혜옥



조선화 범 림파



조선화 변모된 어러리벌 장히로



조선화 첫눈 최성룡



조선화 계곡 최창호



조선화 고려청자와 꽃바구니 정창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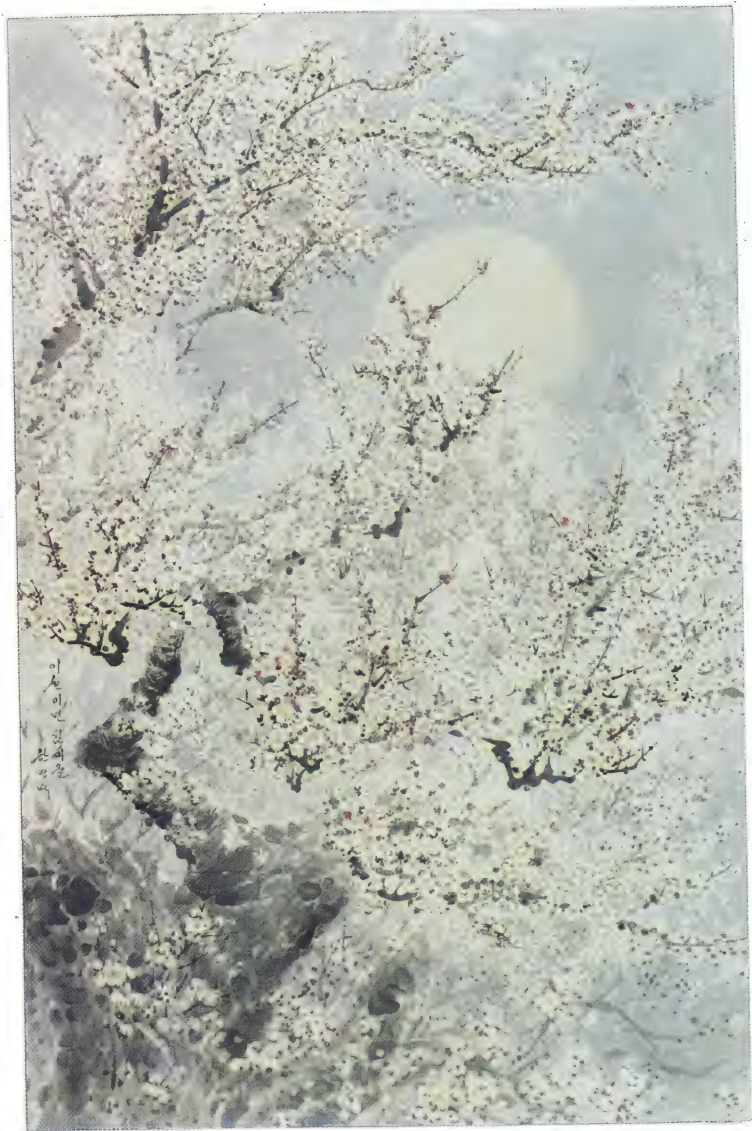
조선희화 강기연의 봄 정창섭



조선화 금강계곡 박권



조선화 백두산장군봉과 비루봉 최창호



조선화 회령의 봄향기 한영배



조선화 봄 김성근



조선화 풍성한 계절 오영성



조선회 이른새벽 박대연



조선화 구지골의 아침 박철선



조선화 상팔담 리명금



조선화 하비로의 가을 김승희



조선화 계곡의 아침에 신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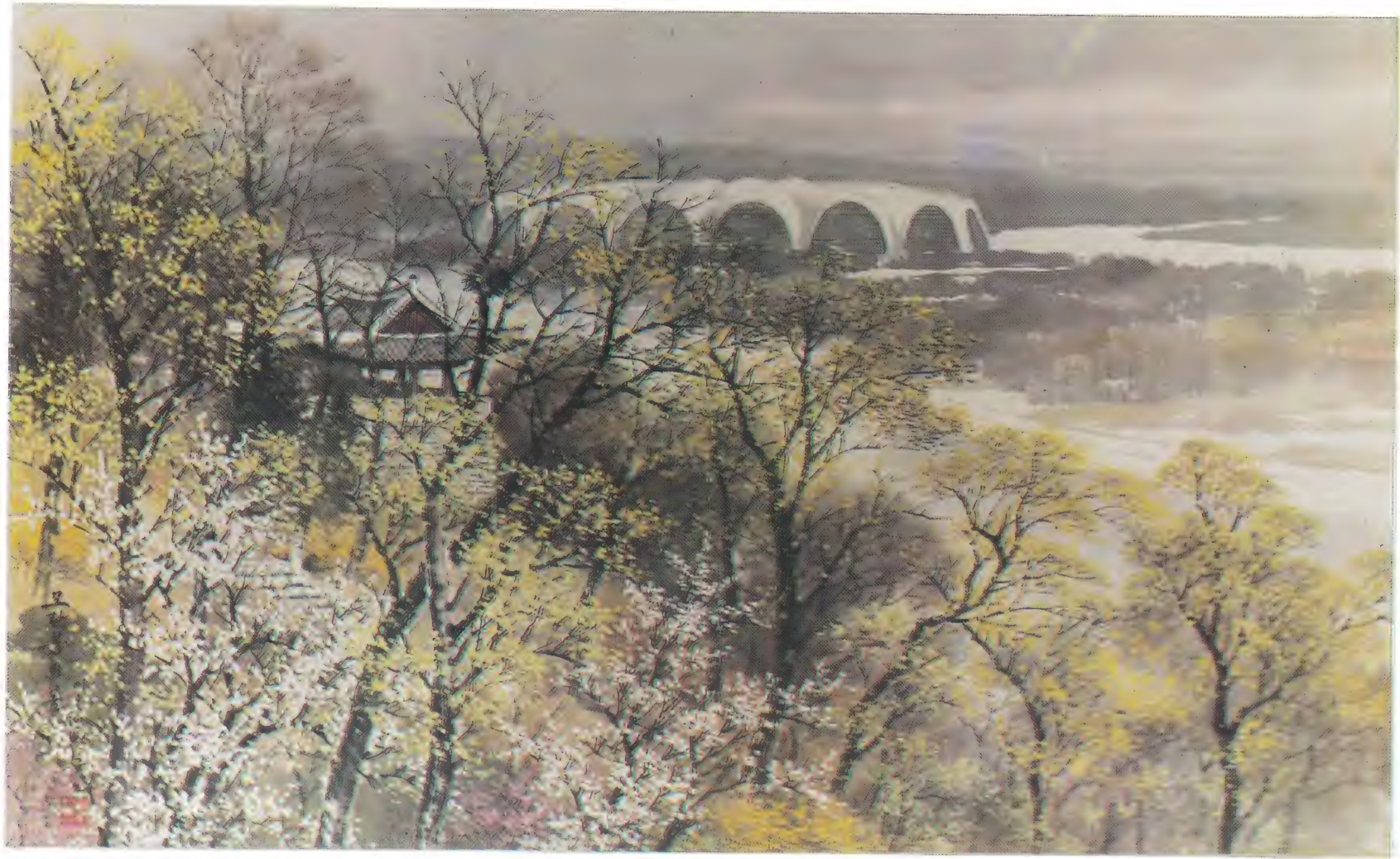
조선화 내금강보덕암 리일협



조선화 전변된 칠골분장 김정국, 리천일



조선화 하비로에 안개개인다 김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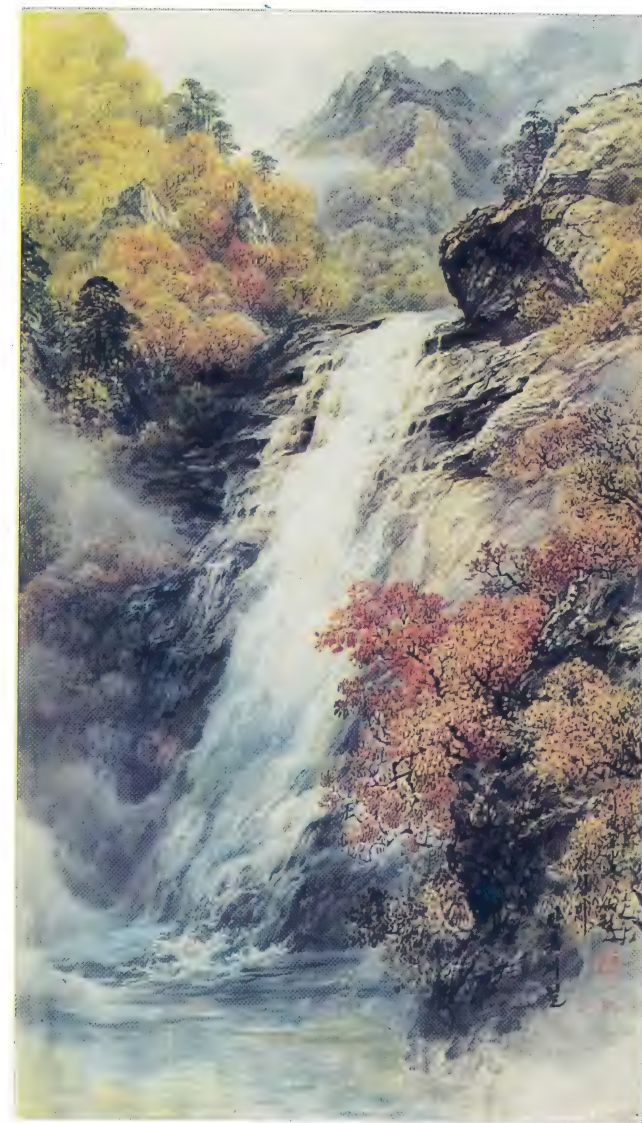
조선화 모란봉의 봄 김수남



조선화 정든 내 고향의 밤 김상호



조선화 묘향산상원동 지순희



조선화 단풍계절 김성미



조선화 금강산온정리 박성문



조선화 뫼새도 자유로이 날건만 김동환



조선화 칠보산의 매바위 최명수



조선화 칠보산의 아침 한영배



조선화 **흰새** 박대연



조선화 **계곡의 여름** 조성혁

유화 풍경



유화 못가 허남일



유화 칠보산의 아침 오종익



유화 우리 집 공정권



유화 수정봉의 아침 윤화룡



유화 코끼리바위 고정철



유화 삼자연에서 한남혁



유화 향도봉의 저녁 량정화



유화 2월의 소백산 량정화



유화 향풍리동구길 홍일



유화 호수가의 아침 장영삼



유화 삼지연의 노을 김상훈



유화 칠보산천불봉 김상훈, 홍철웅



유화 백두산의 무두봉풍경 홍철웅



유화 사랑의 포전교양실 김영식



유화 가을 심성우



유화 와우도의 가을 림명일



유화 천지 로첼 용



유화 백두산 한창길



유화 꽃 백춘금



유화 해금강문의 아침 윤화룡



유화 방목지의 가을 정희남



유화 보덕암경치 로철용



유화 삼지연 최정욱



유화 삼선암의 가을 유흥섭



유화 새봄 백춘금



유화 취야벌의 가을 최중호



유화 산천의 저녁 리철민



유화 보통강반에서 김남수



유화 승리상앞에서 김현철, 김봉일



유화 송전혁명시적지 강승렬



유화 풍성한 남새 김복남



유화 련주담의 가을 심철웅



유화 청류벽의 봄 홍철웅



유화 대탕지의 여름 안재국



유화 사랑의 다리 한송이



유화 만물상의 가을 심성우



유화 여름 지광철



유화 만물상의 아침 윤화룡



유화 묘향산천래폭포 조명남



유화 향산의 초여름 백춘금



유화 구지골사적지로 가는 길 김유광



유화 온정령계곡 리성남



유화 동산리의 아침 리병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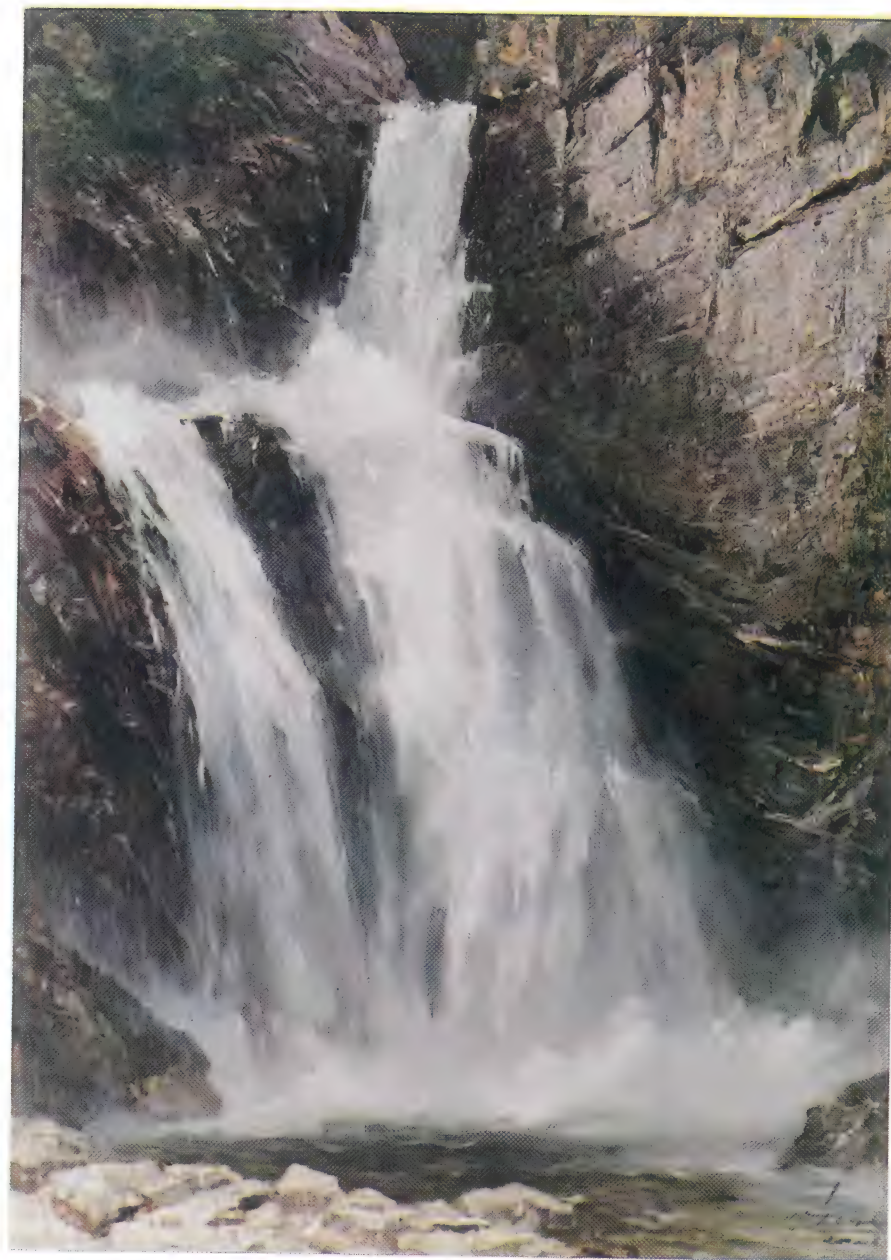
유화 고향의 달밤 강철영



유화 호수가풍경 김룡호



유화 단군릉 허영범



유화 올림폭포 최하락



유화 고향의 여름 강훈영



유화 하비로암풍경 강춘일



유화 향산계곡 김영철



유화 칠보산의 무지개 박명일



유화 신원혁명사적지의 가을 김광주



유화 부전의 겨울 표세중



유화 학무정의 가을 최남수

유화 현장지휘부 문성립



유화 고향의 봄 심성우



유화 석담구곡 신신민



유화 배개봉혁명전적지의 가을 김현철



유화 햇빛밝은 거리 리광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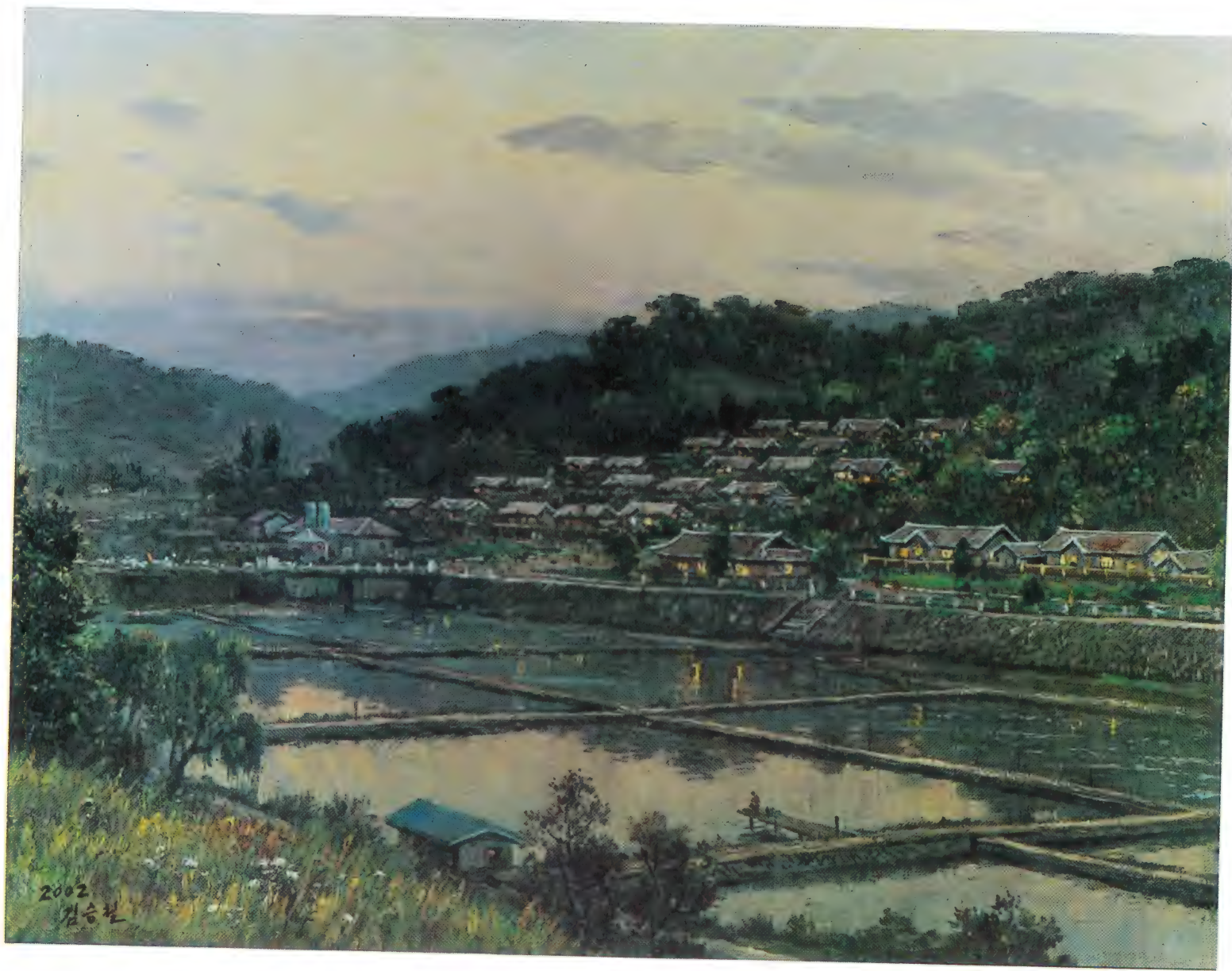
유화 호수가 한창길



유화 무포숙영지에서 림철 롱



유화 포래산으로 가는 길 조성진



유화 고향마을 김승철



유화 저수지풍경 김상훈



유화 뭇가의 밤 오인남



유화 랑천사의 가을 리정철



유화 철길은 이어져야 한다 교창길

조선보석화, 출판화, 수예 풍경



수예 금강산의 봄 김진용, 김미옥



수채화 사자봉의 구호나무 김영호



조선보석화 세계 여러나라 동물들 주대식 외5명

출판화 삼지연에서 보이는 포래산 조희범



판화 목장의 봄 리광철



출판화 내칠보계곡 신철호



수예 백두산의 형제폭포 김창희



출판화 서두수풍경 김남식



조선보석화 밀림의 아침 이경섭 외5명



판화 백두관의 첫눈 김원철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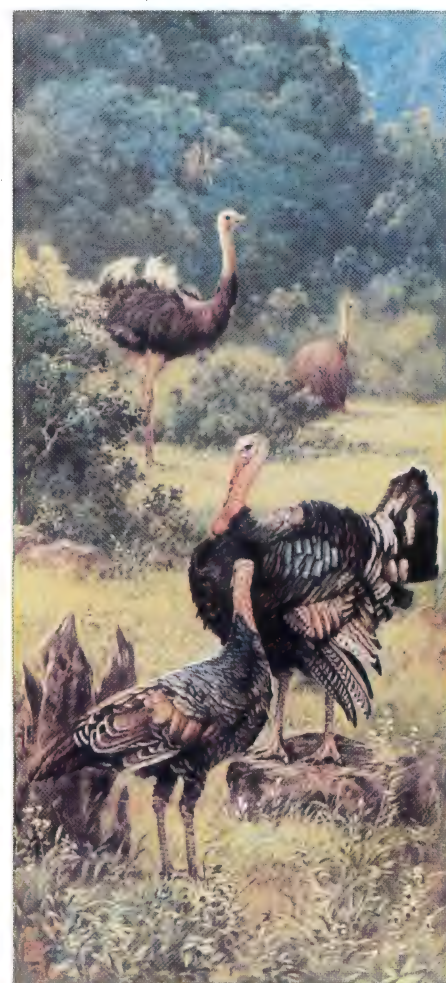
출판화 연사군숙영지풍경 김복실



판화 양어장에서 홍용일, 한성호



조선보석화 호수가의 학 백성철



조선보석화 칠면조와 라조 조준호



조선보석화 도라지 김혜숙



조선보석화 리명수의 봄 한철



조선보석화 양떼가 흐른다 리군석



조선보석화 메기양어장 류창권



출판화 정월대보름 황인제



조선보석화 사자와 기린 김영호, 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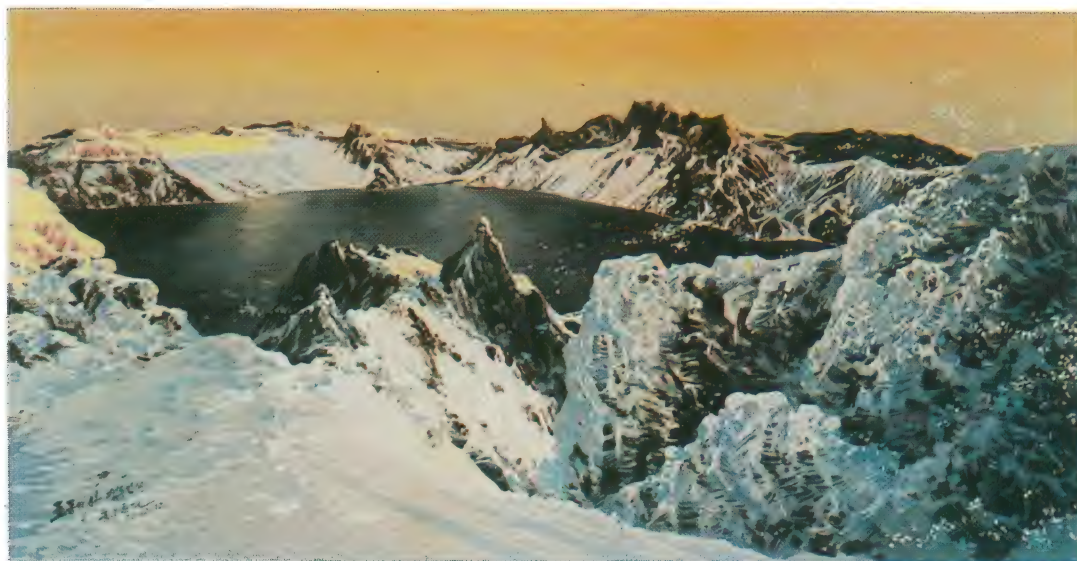
조선보석화 폭포 백성현



수채화 보덕암 천승택



조선보석화 학 최철



출판화 백두산의 아침 김창남



판화 석양비끼 양어장 황인제, 박화순, 박원일, 한성규



조선보석화 고양이 주대식



수예 삼지연의 봄 장설화, 정혜연



수채화 만선 진용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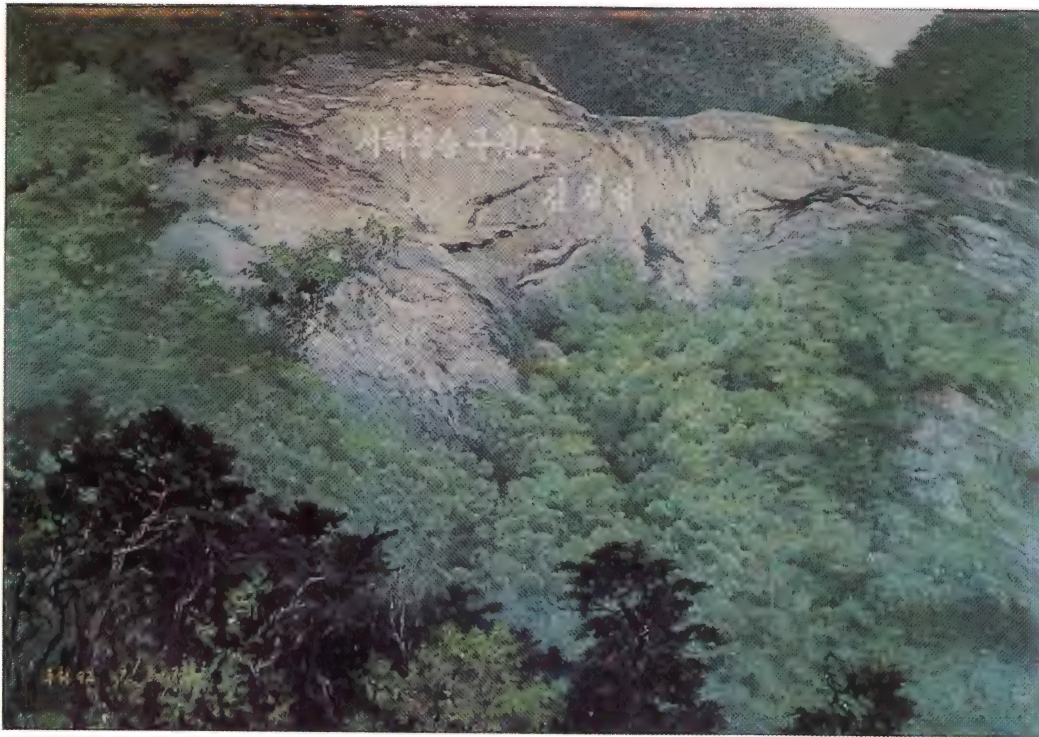
조선평석화 연꽃과 해오라기 박명철



조선보석화 참대곰과 앵무새 길승일, 조창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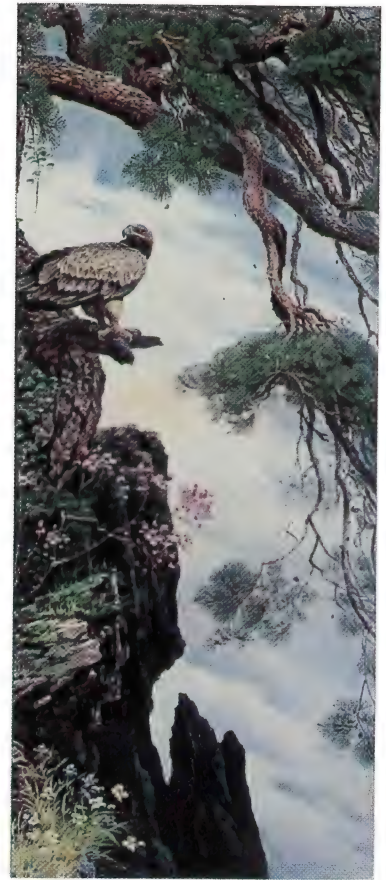
수채화 리명수 6호발전소 리성룡



출판화 구월산의 명제바위 김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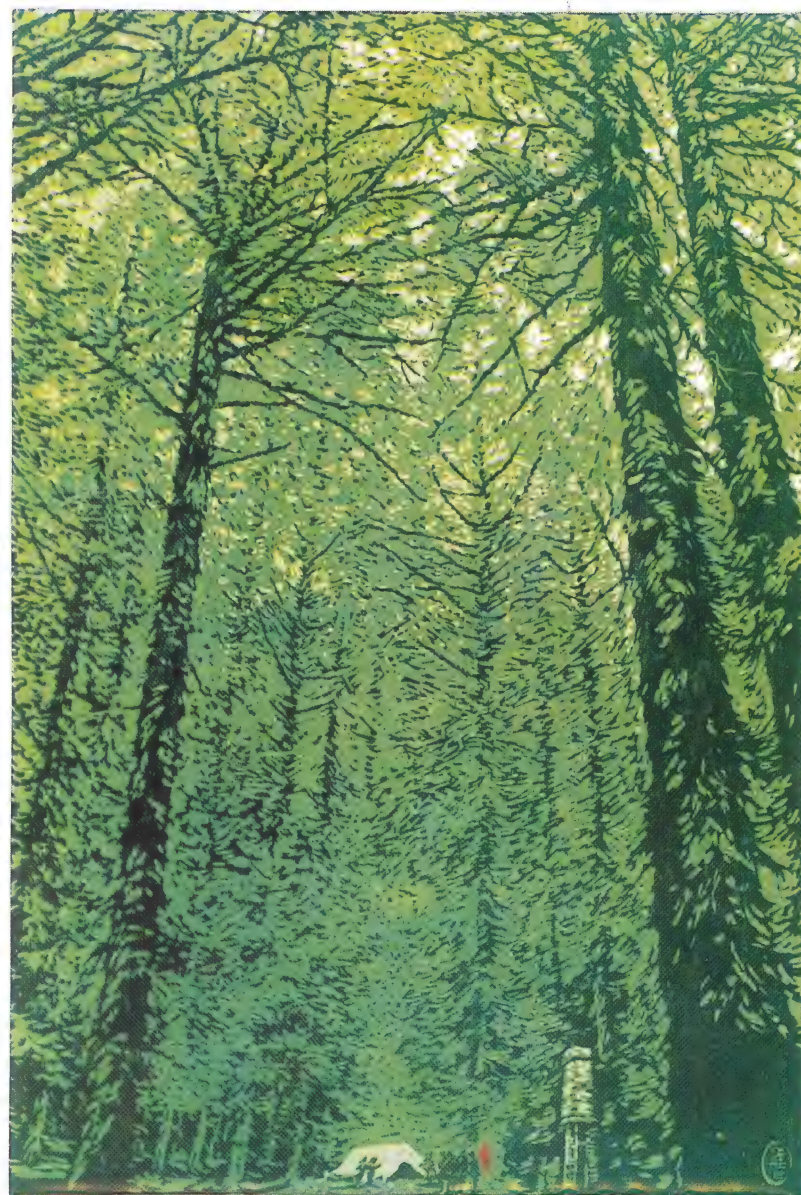
조선보석화 휴식 우철민



조선보석화 소나무와 독수리 우철민



출판화 평양중의 가을 김복실



판화 청봉의 여름 김경철



조선보석화 꿩 주대식



판화 아침 심원석



조선보석화 말 함용혁



조선보석화 강아지(가을) 김혜숙



출판화 선봉군 동선봉풍경 송영남



수예 백두밀영의 향취 양이순, 유영실



수예 비둘기와 목련 오영성, 차경주, 김영숙



출판화 수리기지 황룡운



출판화 만경대의 봄 김창성, 강성철

편 집 김상순

사 진 김성훈, 리철구

장 정 김상순

글 박명선

교 정 이정순

화첩 오늘의 풍경화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92(2003)년 8월 20일

발 행 주체92(2003)년 9월 10일

7-36192

